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예술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제2회 KAC청소년 단편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어쨌든 인생역전
수상내역	동상
작가	정혜연
공모분야	창작 뮤지컬
시놉시스	생활고를 비관하며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 범죄를 모의하는 기범과 노숙자, 그들의 운명은?

어쨌든 인생역전

등장인물

김기범(20대 초반)

노숙자(50대 후반)

여자(다양한 역할)

무대에는 식탁이 많이 놓여져 있고 한쪽에는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있고 그곳엔 항상 사람이 있는데 노래를 할 때 빼고는 말도 거의 하지 않고 무대 위 어떤 일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여자는 여러 인물을 연기한다. 처음 노숙자와 기범이 등장할 때 각자 가방 하나씩 들고 나오고 처음 앉은 의자 옆에 놓아둔다. 뒤에는 ‘행복을 전하는 무료급식소’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기울어진 글자는 노래.

막이 오르면 누가 봐도 노숙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옷차림의 남자가 들어온다. 무료급식소에서 점심을 먹는 게 그의 일상이라는 듯 자연스러운 모습. 앞에서 나눠주는 밥을 받아 가운데 있는 식탁에 앉는다. 조용한 분위기. 노숙자, 한숨 쉬며 숟가락을 든다. 그 때 기범 뛰쳐나오며 분위기 반전.

기범 (술에 잔뜩 취한모습) 아이고, 아이고 두야! (노숙자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운전하는 시늉.) 부릉부릉! 부릉부릉! 달려달려-

차가 쿵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기범이 노숙자를 박는다. 노숙자, 아픈 곳 만지며 기범 노려본다. 남자, 당황하며 일어나서 비틀 비틀거린다. 그때 요리하고 있던 여자가 칼을 갑자기 도마에 꽂 내리친다. 모두 일시정지한 듯 잠시 멈춘다.

여자 김기범을 사회봉사 200시간에 처한다. (칼로 도마 3번 내리치며 탕탕탕.)

아니 이게 웬일이야 사회봉사 200시간
 지금 여기 웬일이야 사회봉사 200시간
 8일 8시간 12000분 720000초
 일주일. 하고도 1일 그리고 8시간?!
 내가 지금 어찌다가 이곳에서 일주일일!
 내가 봐도 한심하지 내가 봐도 부끄럽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일주일. 하고도 1일. 그리고 8시간을 더 버티나.

기범 아이고 내 팔자야.

급식소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만져본다. 그러다 숟가락 든 노숙자 발견.

기범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노숙자 예...(고개 까딱이고는 조용히 밥을 먹는다.)

기범 아저씨 맛있어요?

노숙자 (밥그릇 끌어안는다.) 공짜야. 저기 가서 받아먹어.

기범 예..그냥 물어 본 거예요.

남자, 칼질하고 있는 여자에게로 가서.

기범 안녕하세요.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김기범이요.(약수하듯 손내민다.)

여자 (슬쩍 보고 고개만 끄덕한다.)

기범 (멋쩍은 듯 손 내리고) 잘 부탁해요.

여자 (슬쩍 보고 고개만 끄덕한다.)

기범 (궁시령대다가 까칠하게) 뭐부터 하면 돼요?
여자 (할 거 없다는 듯 손짓으로 나가라고 한다.)
 떠밀리듯 나오는 기범. 무대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모습.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일주일 하고도 1일 그리고 8시간
 짧은 시간이라 하지마세요
 여기 잠깐만 와보세요
 의자에 가시가 돋았나
 아니 여기 터가 안좋아
 그러니까 난 안녕-
 (여자, 당당하게 걸어와서 나가려는 남자 목덜미 잡고 끌어다 앉힌다.)
 하지만 20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일주일. 하고도 1일 그리고 8시간
 그 시간 지나기 전엔 나 못가
 집에 가도 할 일 없지만
 이곳은 아니야

노숙자 거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리 좀 와보게.
기범 아 왜요
노숙자 김기범? 아주 좋은 이름이다.
기범 아저씨는 성함이...?
노숙자 그런 거 없다.
기범 어떻게 이름 석자 하나 없어요.
노숙자 (무시한다.) 여기가 사람이 제일 없는 곳이라 제일 편할 거야. 조오-기 가면 온몸에 파리끓고 다니는 양반들이 널렸어.
기범 (비꼬듯) 아저씨 되게 깨끗하신가 봐요.
노숙자 (자랑하듯) 그림. 난 이틀에 한 번은 꼭 양치질을 하지. (기범에게 입김을 분다.)
기범 우우웁. 아저씨, 이틀에 한 번 양치하는 게 뭐가 깨끗한 거예요. 333법칙 모르세요? (운율감 있게) 하루 3번 밥먹은 뒤 3분 3분 동안 양치질한다.
노숙자 예잇- 그런 걸 하나하나 지키고 어떻게 사나? 내 얘길 좀 들어봐.

아침 6시 기상 밥먹고 양치하고 출근준비
 저녁 6시 퇴근 하지만 오늘도 야근
 막차 놓칠세라 매일저녁 말아톤
 집에 들어오면 내일이 시작되지
 하지만 난 그런 거 없어 규칙은 깨라고 있는 법
 자고 일어나면 아침인지 저녁인지 몰라도 괜찮아
 사는 것이 의미없긴 해도 나를 괜찮은 일상
 사회에서 이리저리 치일 바엔 차라리 속편한 생활
 배가 고파도 걱정없지 이곳 행복을 전하는 무료급식소!
 사는 것이 의미없긴 해도 나를 괜찮은 일상
 사회에서 이리저리 치일 바엔 차라리 속편한 생활
 더럽다 욕해도 돈없다 욕해도 듣고 보니 탐날거야
 나의 일상 나의 생활

기범 (박수치며) 와- 아저씨 너무 멋있으세요.
노숙자 사실 내가 봐도 멋있긴 하지. 그나저나 학생인가?
기범 음... 학생은 아니구요.

아침 9시 기상 밥먹고 양치하고 알바준비
 최저 시급 5,210원 하지만 이걸론 택도 없어
 한 학기 잠깐 다녀 또 한 학기 휴학
 사회생활 시작도 전에 빚만 몇 천만원
 하지만 난 그런 거 없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한번 놀고 나면 아침인지 저녁인지 몰라도 괜찮아
 사는 것이 의미없긴 해도 나름 괜찮은 일상
 취업 안돼 이리저리 치일 바엔 차라리 속편한 생활
 남들 걱정해도 상관없지 내 맘 내 뜻대로 살면 되지!
 사는 것이 의미 없긴 해도 나름 괜찮은 일상
 취업 안 돼 이리저리 치일 바엔 차라리 속편한 생활
 생각없다 육해도 무식하다 육해도 듣고 보니 탐날 거야
 나의 일상 나의 생활

노숙자 야- 진짜 멋있구만. 자유만큼 좋은 건 없지.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범 그런가요? 아저씨, 우리 진짜 잘맞는 것 같아요. 그죠.
노숙자 난 매일 이곳에 오니까 내 말동무나 해줬으면 좋겠네. 김기범이랬지? 1주일동안 편하게 있다가 가겠군.
기범 그럼 우리 술이나 한 잔 할까요?

기범, 식탁 밑에서 술병 꺼낸다. 그리고 서로 술 따라 마시는 모습 보여주면서 무대 암전.

조명 들어오면 둘 다 술에 취해 울고 있다.

기범 아저씨, 사실 저거 다 개뽕이거든요. 속편한 생활? 지금 당장 월세도 못내는 데 편하긴 뭐가 편해요. 남들 공부할 때 저 알바했구요, 지금은 하는 일마다 다 잘려서 매일 술이나 먹으면서 살아요. 남들은 손벌릴 부 모라도 있지 전 하소연할 친구하나 없어요. 아는 사람 다 끌어다 모아서 매일 돈이나 빌리고... 혼자살면 이것저것 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것같죠? 돈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군대나가려고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저 벌써 갔다왔어요.(영영 운다.)
노숙자 이노브새키- 누군 안힘든줄 알아? 내가 좋아하는 계절이 언제냐면 겨울이야. 겨울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겨울이면 이렇게 자다가 아무런 고통없이 죽길 바라면서 잠이 든다구. 남들처럼 가족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바라보면서 살겠건만 나는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어. 그렇다고 누구 하나 말 걸어주는 사람이라도 있나? 하루에 한 마디도 안하는 날이 대부분이야. 사람은 사람과 만나면서 살아야하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그러더군, 예산 받아쳐먹는 거지라고. 이곳도 저 여자 하나로 겨우겨우 운영되는 곳이야.(영영 운다.)
기범 남들 시선 의식해서 자유로운 척, 즐거운 척하고 사는데요, 저 이렇게 살기 싫어요. 하고싶은거 다 하면서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삶 살고싶어요.
노숙자 나도, 저 사람들처럼 집도 있고 돈도있고 차도있고... 그렇게 살고 싶어.

나는 변호사. 어렸을 땐
 나는 과학자. 어렸을 땐
 그건 그냥 어렸을 때 얘기지.
 말만 하면 뭐든 다 되는 줄 알았지.

저기 좋은 대학 나왔다는 애들도
 지금 나처럼 한가하게 놀고 있어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갚아야 할 돈 산더미
 그제 싫어서 일찍이 포기한 학교
 그런데 학교를 안가니 할 게 없네
 꿈이라도 있었으면 그것만 쫓아갈텐데

저기 젊은 시절 부유했던 애들도

지금 나처럼 길거리를 방황하지
 아직 행복도 못찾았는데 살아갈 날 산더미
 의미 없어서 일찍이 포기한 삶
 그런데 나를 포기하니 할 게 없네
 꿈이라도 있었으면 그것만 쫓아갈 텐데

나는 변호사. 어렸을 때
 나는 과학자. 어렸을 때
 그건 그냥 어렸을 때 얘기지.
 말만 하면 뭐든 다 되는 줄 알았지.
 그래도 그땐 행복했는데,
 그래도 그땐 즐거웠는데
 어디에 두고 왔나. 어디에서 사라졌나.
 내가 자랐던 우리집에 놓고 왔나
 내가 걸었던 마당에 묻고 왔나
 나의 꿈 어딘가엔 있으려나 어디에 두고 떠나왔나.
 먼지 쌓여 알아볼 수 없는 건 아닐까
 그래도 그땐 행복했는데, 즐거웠는데.

기범과 노숙자, 이제는 껴안고 온다. 주방여자는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고 있다.

기범 (정신 차리고) 아저씨, 저 사실 술먹고 교통사고 일부러 낸거예요. 근데, 그거마저...(울먹울먹) 실패했어요.
노숙자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기범 입 틀어막으며 관객들 눈치본다.) 그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알고하는 말이야?
기범 (노숙자 손 치우며) 사람들 다 들어보라고 해요, 요즘 감방이 그렇게 잘되어있대요. 옛날처럼 콩밥 뭐 이런거 안나오구요. 밥도 얼마나 잘나오는데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기술도 배울 수 있대요. 저같이 능력 없고가진거 없는 애들한테 딱이죠.
노숙자 (점점 언성 높아진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일부러 사고를 내?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그래, 우리도 이제 꿈이 하나 생긴 거야.
기범 꿈이요?
노숙자 같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서 기술도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밥도 마음놓고 먹고...
기범 그래, 전엔 무서워서 실패했지만 이제는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노숙자 근데,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지?
기범 딱! 한사람만 죽이면 돼요.
노숙자 (당황 하며 망설인다.) 뭐? 정말 그것밖에 방법이 없을까?
기범 지금 우리한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잘한 폭행 음주 뭐 이런거 하면 저희 돈만 날려요.
노숙자 (당황해서 어버버댄다.) 그래도... 사람을 죽이자는 말을 그렇게 쉽게...
기범 아저씨, 지금 하루에도 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유없이 죽는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뉴스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인한 살인범이 감옥에서 따뜻한 밥먹으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잖아요. 괜한 사람 말고 우리가 죽여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을 깍- 하는거죠.
노숙자 그래, 거 뭐시냐 옛날에 그 일지뎐가 이지뎐가 하는 놈도 백성들을 위해서 도둑질을 했지.
기범 그럼요- 우린 나쁜 짓을 하려는게 아니라니까요? 단지 우리 꿈을 위해서 죽여마땅한 사람 한 명 희생시키는 것뿐이죠.

기범과 노숙자, 기쁜 마음에 춤추고 노래한다. 계속 요리하던 여자, 칼질 소리가 갑자기 커지더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도망치듯 퇴장한다. 그러면 여자가 놔두고 간 부엌칼을 가지고 온다. 칼엔 장미그림이 그려져있다.

노숙자 이걸 돌맹이도 찌크찌크 썰어버린다는!
기범 (비장하게 끄덕)

그래, 이제 다시 새로운 꿈을 꾸는거야

그래,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거야
 암흑같던 내 인생 지워버리고
 먼지같던 내 인생 털어버리고
 보란듯이 살아갈거야 멋지게!

여자 (노래 중 모자 깊게 눌러쓰고 등장한다. 기범 바지 주머니 뒤에서 지갑을 슬그머니 꺼낸다.)

(노숙자, 여자 손목 잡으며) 소매치기 돈 꽤나 챙겼겠지. 하지만 이젠 그 일도 끝.

여자 잘못했어요. 집에 어린 동생이 있어요. 부모님 안계시다고 없으면 아무데서도 일하는 족족 면접에서 떨어
 저서...(퇴장)

세상엔 이상한 사람 참 많지
 나쁜 사람도 참 많지
 하지만 그럴만한 사정도 있는 법
 알고보면 미워할 수만은 없네

여자 (노래 중 흥기를 들고 등장한다.) 다 죽어버릴거야!

흥기난동 실제론 처음보네. 하지만 여자 하나 여긴 남자 둘

여자 (갑자기 흥기 내려놓고 울먹거린다.) 너무 힘들어요. 죄없는 우리 아버지, 평생 남밖에 모르시던 아버지,
 힘없는 사람들 위해서 싸우다 힘있는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경찰은 눈가리고 아무것도 듣지도 않
 고...(퇴장)

세상엔 이상한 사람 참 많지
 나쁜 사람도 참 많지
 하지만 그럴만한 사정도 있는 법
 과연 누가 진짜 나쁜 사람일까

여자 (등장하고 식탁 위로 올라간다. 발밑을 쳐다보면 아찔하다.) 지방대 나왔으면 면접도 보면 안되니? 이제
 마음잡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직 대출받은 것도 못갚았는데... 땀어 가방끈 긴 너희들끼리 잘먹고 잘살아
 라 난 이제 간다!

어차피 죽을사람, 불쌍하긴 하지만 우리가 대신 보내주는거야.

기범, 여자를 끌어 내린다.

여자 허억.. (정신 차리고)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살고싶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포기 안하고 진짜 열심히
 할거예요. 진짜진짜 감사합니다!(퇴장)

세상엔 이상한 사람 참 많지
 나쁜 사람도 참 많지
 하지만 그럴만한 사정도 있는 법
 저기 떠난 사람들 사실은 살고싶지 않았을까.

정말로 나쁜 사람이 존재할까
 정말로 착한 사람이 존재할까

사람마다 가지각색 저마다 다 다른 사연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 존재할까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 존재할까
저 사람들 다 알고 보면 딱한 사람들
저 사람들 사정 듣고보면 불쌍한 사람들
세상엔 이상한 사람 참 많지
나쁜 사람도 참 많지
하지만 그럴만한 사정도 있는 법
우리가 얘기했던 죽어마땅한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여기 있긴할까

노숙자와 기범, 다시 의자에 앉는다.

기범 참 많네요, 우리같은 사람들.

노숙자 그러게. 나만 불행한줄 알았는데.

기범 결국 오늘은 실패네요. 어떻게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노숙자 우리가 자꾸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이 세상 사는 사람치고 고민없고 사연없는 사람도 있나? (계속 주절주절 얘기한다.)

여자, 선글라스를 끼고 한손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등장한다.

여자 아우, 더러워. 저런 놈들 밥줘서 뭐해 돈만 펄펄 날리는 거지 뭐. (옆에서 노숙자 분노하며 난리치자.) 어휴 냄새.

여자, 의자에 걸터앉아 다 마신 커피컵을 아무데나 버린다. 그리고 다 쓴 기름종이 등 여러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 노숙자, 기범에게 있는 칼을 뺏으려고 한다. 하지만 절대로 뺏기지 않는 기범의 모습.

노숙자 야, 한번만 줘봐

기범 아저씨, 참아요 참아.. 우리한테 꿈이 있...(뭔가를 깨닫고 칼을 놓는다.)

노숙자, 칼을 들고 여자에게 뛰어간다. 잔뜩 겁에 질린모습의 여자. 하지만 노숙자 자기가 더 벌벌 떨다가 기범에게 다시 뛰어온다. 그 사이 여자는 도망간다

노숙자 나..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니가 해.

기범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요. 어떻게 온 기원데.

노숙자 이게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쉽지 않다.

기범 그래서 제가 그때 실패하고 사회봉사따위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숙자 ... 됐어, 얹어. (자리에 앉는다.) 어떻게 우리는... 하는 것마다 안되나.

기범 (깊은 한숨. 칼을 자기 가방에 넣는다.)

어릴 때부터 하는 일마다 실패
내 인생에 성공이란 단어는 없었어 단 한번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나에게 실패는 그냥 실패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되지 않지.

옛날부터 하는 일마다 실패
내 인생에 단 한번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깨져버렸지
나에게 성공은 그냥 허상일 뿐.
그 이상을 바라볼 수도 없지

마지막 하나 남은 희망
 겨우 찾은 나의 꿈
 그래 이렇게 또 한편에 잊혀지는구나
 결국 저쪽에서 쓸쓸히 지워지는구나
 암흑같던 내 인생 지워버리고
 먼지같던 내 인생 털어버리고
 멋지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우리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노숙자와 기범, 다시 앉아서 술잔을 기울인다. 처음 앉았던 자리와 반대로 앉는다.

노숙자 그래도 한 때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 옛날에. 아주 잠시였지만.

기범 뭔데요?

노숙자 가족이 있었거든. 사랑하는 아내와, 금쪽같은 아들.

기범 아저씨, 진 단 한번도 행복했던 기억이 없어요. 뭐, 화목한 가족.. 이런 거 있어본 적도 없고 저희 아버지 얼굴은 기억도 안나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안게셨고 아버지 그냥 언젠가 사라지셨거든요. 아주 어렸을때.

노숙자 어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안게셨다고? 돌아가셨나?

기범 그건 잘 몰라요. 아버지가 한 번도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안해주셨거든요.

노숙자 보통은 살짝이라도 얘기 해줄 텐데... 그럼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

기범 잘 기억은 안나는데요, 다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아무 말 없이 흔한 편지 한 장 없이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저는 보호소에 맡겨지고...

노숙자 아버지 많이 원망하겠구만.

기범 아니요, 원망 안해요. 그냥... 아무 생각없어요.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그런가. 그래도 나한테 아버지라도 계셨다면 적어도 지금 위로받을 곳은 있겠다, 딱 이정도.

노숙자 그래도 아주 나쁜 아버지가 아닌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두고 사라지다니.

기범 뭐, 아버지도 사정이 있으셨겠죠. 설마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두고 이유없이 가셨겠어요? 저에게 절대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노숙자 참 착하게 컸네. 보통 사람이면 원망하고도 모자랐을 텐데.

기범 아저씨는요? 행복했던 가정이 있었다면서요.

노숙자 그래, 나도 한 때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아주 행복했는데. 내 아내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착했지. 하지만 자기 자신 돌볼 줄을 몰랐네. 우리에게 첫 아이가 생겼을 때 뒤늦게 아내의 병을 발견했어. 그리고.... 여기까지만 말하는 게 좋겠어. 그 이후의 일은 씻을 수 없는 죄일세. 내 몸 안에서 쿵쿵 찌르지만 절대 뺄 수 없는 가시 같은 거.

기범 아저씨도 참 좋은 분이세요. 세상엔 자신이 지은 죄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노숙자 그래. 오늘은 좀 쉬어야겠네. 하루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기범 네, 저도 이만 가야겠어요.

노숙자와 기범 멀리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 옆의 가방을 들고간다. 서로 가방이 바뀐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기범이 각각 무대의 양쪽 끝에 자리 잡고 앉는다.

나는 변호사. 어렸을 땐
 나는 과학자. 어렸을 땐
 그건 그냥 어렸을 때 얘기지.
 말만 하면 뭐든 다 되는 줄 알았지.

한편에 자리하고 있는 아버지의 음성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 얼굴
 잊혀져가네 흐릿해지네
 딱 한번만 그 소리 들을 수만 있다면
 딱 한번만 그 얼굴 볼 수만 있다면

기범 지금 어딘가에 계시겠죠. 아니, 안계실수도.. 세상은 좁다는데 딱 한번은 마주치겠죠. 아버지는 왜,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저 혼자 두고 떠나셨을까요.

기범, 가져온 가방을 열어보고 노숙자와 가방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리고 거기서 노숙자의 가족사진과 작은 수첩을 발견한다.

기범 아저씨의 가족사진? 근데 이건 내 어릴 적 모습인데.. (기범, 다급하게 수첩을 열어본다. 수첩 안은 일기인지 편지인지 모를 글들만 가득하다. 수첩 아무데나 펼쳐서 읽어본다. 기범의 말은 곧 노숙자의 노래로 바뀐다.) 우리 가족 딱 한번만 다시 만날 수 없을까...

*(노숙자)한쪽에 자리하고 있는 행복했던 기억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추억
 다시 꿈꿔 볼 수도 희망할 수도 없어
 사랑했던 아내와 소중했던 아들
 그리고 모자랐던 남편과 나쁜 아버지*

여자, 노숙자의 아내로 등장한다. 임신한 모습.

여자 여보, 전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우리 아이만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포기해요

노숙자 아니,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든 수술비를 마련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버텨줘요. 조금만..(퇴장.)

여자 전 정말 괜찮아요. 여보, 여보!

여자, 노숙자 따라 나간다. 곧 노숙자 등장

노숙자 선생님, 돈만주면 둘 다 살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수술비 때문에 빚을 얼마나 졌는데...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 다 털어서 바치니까 지금 와서 방법이 없어? 상태가 위독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살 수 있다고 하질 말았어야지, 나중에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이라, 그렇게 말했어야지! 이 나쁜 새끼들아! ..선생님, 돈은 얼마든지 더 드릴 수 있어요. 둘 다 살려만 주시면 돼요. 그냥 제 옆에서 같이 숨 쉬면서 제 말에 웃어주고.. 그렇게만 해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때 죽음을 알리는 삐-소리 들린다. 노숙자, 허탈한 표정. 그러다가 다리에 힘 풀린 듯 비틀거리며 퇴장한다. 곧 초등학생의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한 팔에 매고 등장한다. 한 손엔 전화를 받으며 급신거린다.

노숙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딱 한 달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이 어렵거든요. 우리 아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예? 아니, 갑자기 어떻게 이자가 그렇게 불습니까... 아니요,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전화기 힘없이 내려놓는다. 그리고 가방을 쳐다보면서 얘기한다.) 아들아. 너에게 이런 일 겪게 하고 싶지 않구나. 나는 모든 것 풀어지고 떠날 테니 너는 딱 남들처럼만 평범하게 살거라.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미안하다.

노숙자, 가방끌어 안고 퇴장하면 기범이 수첩을 보며 울고있다. 무대 암전.

조명 들어오면 노숙자 혼자 앉아있다. 그리고 기범이 조심스럽게 무대 위로 들어온다. 한손에는 노숙자의 가방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어릴 때 쓰던 가방을 들고 있다.

기범 이거...(가방 건네준다.)

노숙자 고맙네.

기범 (말없이 자리에 앉는다.)

노숙자 혼자 두고 떠나와서 미안하다.

기범 정말로 아버지세요? 진짜 제 아버지 맞아요?

노숙자 그 때, 아무리 힘들어도 너랑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그럼 우리 둘 다 조금은 행복하지 않았을까
기범아버지!

기범과 노숙자 서로 부둥켜안고 운다.

기범 아버지, 저 이제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노숙자 그래, 우리 이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 할만큼 행복하게 살자.

이 때, 경찰복입은 여자 등장한다.

여자 너희들을 살인미수혐의로 체포한다. 너희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
변명할 기회가 있어. 아무리 큰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어도 살인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죄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러니 순순히 따라와.

노숙자와 남자, 조용히 손을 잡는다.

*그래, 이제 다시 새로운 꿈을 꾸는 거야
그래,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암흑같던 내 인생 지워버리고
먼지같던 내 인생 털어버리고
우리만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이 함께해.*